

## 예배 순서

한가족연합예배 11시

설교: 이태경 담임목사, 사회: 류경식

예배로의 초대 Prelude \* / 목도

<찬양과 기도>

찬 송 Hymn \* /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인 사 Welcome \*

경배와 찬양 Song of Praise

신앙고백 The Words of Confession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기 도 Prayer / 이승모

<말씀>

성경봉독 Reading of Scripture / **눅 2:52**

찬 양 Choir / 주찬양성가대

간 증 Testimony / 권주형

말씀선보 Sermon / 이태경 목사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기도 Pastoral Prayer / 이태경 목사

<성찬식>

성찬식 Lord's Supper /

성찬위원: 오상식, 이승모, 이승환, 홍성중

<예물봉헌>

봉헌송 Hymn \* /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예물봉헌 Offering, Prayer of Thanksgiving \* / 이수진

<축 도>

마침찬양 Closing Hymn \* /

64 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축 도 Benediction \*

교회 소식 Greetings and Announcements

식사기도 / 이정음

\* 일어서서

## 저소득층 구제 봉사 HOPE 커뮤니티 <레스큐 미션> 참여 후기

### “누군가를 돕고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지난 여름 남편을 따라 이곳 탈라하시에 온 후, 아이들을 돌보며 처음 경험하는 타향살이에 맞닥뜨릴 어려움과 고민을 느끼던 중에, 교회 집사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레스큐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엔 같이 있던 남편이 참석을 원하였지만, 당시 직장생활에 바쁜 남편대신 내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육아와 가정생활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에 <레스큐 미션> 참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였고, 나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격려와 함께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 일상에 작은 변화 주고파 참여

<레스큐 미션> 날짜가 다가오면서, 부족한 경험과 평소 잘 못 하는 영어와 함께 실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을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봉사 당일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다.

봉사 당일, 거주자 분들께 제공하기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각자 담당

부분에 대한 일을 시작하였고, <레스큐 미션>에 대한 평소 경험이 많으신 집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맡은 음식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

내가 간 곳은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라 그런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아침을 제공하면서, 디저트로 요거트를 준비하였는데 너무나도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웬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다.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어색한 감정을 느끼게 한 것 같았다.

<레스큐 미션>을 통해 남을 돕는다는 것은 말이나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직접 움직이며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 평소 머리속에서 맴돌기만 하던, 누군가를 돕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



▲ <HOPE 커뮤니티> 봉사 장면 / 사진 이태경 목사

며, 나의 작은 보탬이 다른 이에게는 기쁨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잡아주는 것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전해 드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언젠가는, 지금 자라고 있는 나의 어린아이들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여 남을 사랑하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키워 갔으면 좋겠다.

/ 글: 손선경

남편 김광민(Post Doc., National High Magnetic Laboratory)과 슬하에 지송(딸 3살)과 준서(아들 2살).

지난해 7월 탈라하시로 이주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  
<HOPE 커뮤니티>는 저소득층 싱글맘과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매끼니마다 약 140명분 식사를 제공하며, 우리교회는 매월말 봉사에 참여한다.

#### 지난주 예물봉헌 OFFERING >>>

십일조: 이승모/손명례, 김춘식, 김정수/박영임, 이재훈/정인희

주일헌금: 이태경/이하나, 이희상/이은숙, 김보의/김민철, 김광민/손선경, 오상식/오정숙, 박선규, 송헌지

감사헌금: 권형남/이영원, 홍성중/장금복, 강인성/임미영, 미순/카터, 김덕윤/김선경, 권진중/김정화, 조기웅, 하주용/정경선, 신재인/신형섭, 무명

선교헌금: 이승모/손명례, 이삭(헝가리), 은혜(인도네시아), 믿음(인도), 사랑(나바호)

교회발전기금 (지봉교체 지정헌금): 이승모/손명례, 최일환/최성은, 김정수/박영임, 김덕윤/김선경, 김영호/이화옥

단기선교: 이재훈/정인희, 정금숙

†헌금총액: \$3,555.05 / 십일조 \$950, 감사헌금 \$695, 주일헌금 \$332, 선교헌금 \$300, 주일학교및중고등부 \$33  
교회발전기금(지봉교체 지정헌금) \$1,095.05, 단기선교 \$150

#### 재정통계 FINANCIAL SNAP SHOT (최근 4 주) >>>

1/22 - \$3,555.05 1/15 - \$5,878.00 1/8 - \$4,494.50 1/1 - \$2,435.00

†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따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마련한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